

민선 5기 1년 광주 구청장에게 듣는다

황금로 웨딩-패션거리로
도심 공동화 해소 하겠다

유태명 동구청장

유태명 동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둔 26일 "지난 1년간 동구는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간 동구는 예산 부족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청사 내 소비재 줄이기 등 은 직원이 허리띠를 조여왔다. 구간경계조정도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착공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문화기반 도시 기틀을 마련했고, 응급시계사업 정착, 출산장려사업 등 복지사업을 확대했으며, 중앙축제로 247억원의 지역경제 생산과급효과를 유발한 것은 성공적이라 할 만하다.

-동구의 현안은 도심공동화 극복이다. 대안은.
▲총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전자의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점을 활성화하겠다. 또 구시청 사거리 일대에는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황금로와 불로길에 웨딩-패션 특화의 거리 조성을 진행해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겠다.

-동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데.
▲현재 학2구역 공동주택사업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 계획7, 계획5-2, 학동 3구역을 중점 추진구역으로 설정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또 용산동 뉴타운과 보금자리 주택단지, 선교동 녹색 주거타운 조성도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민선 5기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분야는.
▲2014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뒷받침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힘을 쏟고, 모든 구민이 잘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응급시계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효율동 팔레방 운영 등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또 구민들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구 아카데미, 여성대학, 경로대학 등을 운영해 미래 경쟁력을 높여겠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민 의견 최우선 수렴
교육·문화특구 만들것

최영호 남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취임 1주년을 앞둔 26일 "남구는 지난 1년간 주요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은 기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남구를 교육·문화특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남구는 광주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구를 교육·문화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11월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보다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진행중이다. 특히 송하동 송암산업단지 활성화되면 1000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유치와 함께 광산구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중 체육시설이 가장 미흡한 곳이다. 체육시설 건립지는 광주지역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부지매입비 등 제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남구가 광산구에 비해 수영장 유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영장 건립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본다. 감정적인 대응은 광주의 화합만 꾀한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의사와 각 동의 균형이다. 청사 이전 문제나 푸른길 공원 조성 당시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몇몇 사업 초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공청회와 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를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선 5기 남은 기간 계획은.
▲균형발전은 정치인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전국의 각 시도가, 시장은 각 자치구가, 구청장은 각 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남구의 전체적인 발전과 함께 동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구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말바우 등 전통시장
관광문화형시장 육성

송광운 북구청장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송광운 광주 시 북구청장은 민선 5기 1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송 광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살리기와 농가소득 증대, 건강복지타운 건설 등 경제 살리기와 주민 복지정책 위주의 시정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이뤘어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민선 5기 1년 성과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리화 등 맞춤형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규모 점포 등 등록 및 조정조례를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와 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다. 또 건강복지타운·다목적 체육관·구립 도서관 건립·장애인 전문재활병원 건설 등 주민 건강과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마친 상태다.

-지난 1년간 각종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총 58건, 5억78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동네 한 바퀴 주부순찰단·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소통 시책은 전국적인 선진 자치모델로 평가받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인 이마트 입점과 관련, 건축허가승인을 내준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영세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영세상인 보호와 학습권 보호 등의 명분을 내세워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현행법에서는 대형 마트 입점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한계를 느꼈다.

-앞으로 계획은?
▲남은 임기 동안 북구 발전 8대 핵심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을 위한 선 성장동력으로 삼아 북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또 광주연구개발특구와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미래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 특히 21세기형 경로당·노인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복지인프라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민형배 광산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6일 "지난 1년간 '현장'과 '참여'를 고안하며 구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이슈가 된 '구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이 외면한 문제는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민형배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기도 하다. 그는 광주지역 유일한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의 다양성을 최대한 살려내 역동적인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청장으로서 1년이 지났는데.
▲신문기자, 시민단체 대표, 청와대 비서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니 좀 더 진지해졌다. 자치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자치는 바로 현장과 참여가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
-광산구는 광주 유일의 도농 복합지역이다.
▲취임하기 전부터 광산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에 있었다. 신도심과 구도심, 원주민과 외지인,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외국인인과 내국인 등 대립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이를 잘 관리하고 조정한다면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만큼 대립과 충돌이 없어 다행이며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



-구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파급효과가 대단하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복지체계가 너무도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먼저 공공기관이 나서야 하며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광산구청 내에는 상시고용 분야에서 비정규직은 없다. 광주시나 국회, 중앙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임금 역시 최저임금보다 20% 올려 적용하고, 호봉체계를 공무원과 똑같이 할 예정이다. 이는 인식의 문제로, 광주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인력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한다.

-공공비행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 난항이다.
▲군 공항은 하루 빨리 옮겨야 한다. 현재의 소음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 있어야하며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3가지 방법론으로 해결하겠다.
-향후 역점을 둘 계획은.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복지나 나눔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일자리, 교육 분야까지 챙겨보겠다.

/주부취재본부=기원대기자 wtkee@kwangju.co.kr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전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중 광주 동구 대아 APT 시 공 후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칼라강판지붕개량 061)335-8842, 010-4024-4005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런(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력면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은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상요금(사용전력량:10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 상요금
8만 원(약 4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 원(약 4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 원(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 원(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 원(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8,400원
25만 원(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 원(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준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062-512-1180 / H.P 011-659-7001